

부산본부세관 관우불교회 총무 신오룡(46) 씨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당리동 관우사 주지 지현스님에게 자문을 구한다. 법회 장소와 법문, 신행상담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 관우불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부산간호사불자회와 교사불자회 자립회, 사하구청 법우회도 관우사로부터 법회 장소와 법사 지원, 일부 재정적인 후원까지 받고 있다. 관우사는 부산지역 직장불자들의 없어서는 안될 거점사찰이다.

직장불교단체는 전국적으로 400여 곳, 이들 중 자체법당을 갖고 있는 단체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체들은 인근 사찰이나 회의실 등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찰에서 법회를 열고 있는 단체들이라 하더라도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무각사, 항림사, 창원 성주사, 서울 봉은사, 조계사, 대전 백제불교회, 고성 운흥사, 마산 정법사 등은 직장단체에게 도량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후원도 아끼지 않아 직장단체들의 '귀의'로 부각되고 있다.

## 조계사·부산 관음사·마산 정법사 등 직장단체에 거점사찰 역할

법회장소·법사·재정 지원... 신행상담도

광주 무각사      광주국세청·서부경찰서·서구청불자회 등  
백제불교회관    대전시청·6개구청·정부청사반야회 등  
서울 봉은사      세무사불자회·국세청보리회·해병불자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은 광주 지방국세청과 서부경찰서, 서구청 불자회, 광주 운전기사불자회, 광주불교산악회가 원천으로 삼고 신행 활동을 펼치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올해 말 광주불교회관이 완공되면 사무실도 내어줄 계획이다.  
대전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지난해 1월 개원 이후 직장단체는 물론 20여 재가신행단체들이 적(籍)을 두고 있을 만큼 대전지역 재가불자들의 거점역할을 북돋고 있다.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대전시청과 6개 구청 불자회, 대전정부청사 반야회, 서대전세무사 불자회, 대전불교연인회, 대전교사불자회, 철도청법우회가 매일 1

차례 이상 법회를 열고 있다. 백제 불교회관 소속 포교사들이 이들 단체들의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 외곽지역에 위치한 성주사(주지 원정)의 경우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와 경남도청 불자회, 창원시청 불자회, 두산중공업 법우회, 창원법조 불자모임 등이 신행활동의 중심도

방으로 삼고 있다. 성주사는 법사, 차량지원과 일부 재정 후원을 하는 대신 직장불자들의 윤리를 받고 있어 상호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 보리회, 한전 본사반야회, 해병대불자회, 선재마을의료회 등에 법회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강남경찰서와 영등포구도 법회에 법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작은 보시 큰 자비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의 일부를 직장단체에도 후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 운흥사, 광주 항림사, 서울 조계사, 마산 정법사 등이 직장단체의 거점사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제불교회관 장곡스님은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려는 직장불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은 사찰의 고유기능 중 하나"라며 "사찰이 직장불자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바른 신행활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aok@buddhania.com

## 우리불자회는요 은평구청 불심회

96년 9월 창립해 올해로 6살이 된 불심회는 1백명이 넘는 법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보면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는 법우들의 극성 같은 흥분 덕택입니다. 구청에 새로 전근해 온 직원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 불교책자를 전달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불심회 법우들은 이웃 좋은 경우나 부처님 말씀을 발해해 전자메일로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전자계시판을 통해 수시로 불심회와 공무원불자연합회 소식을 알려 줍니다. 이 정도면 불자들

고, 매월 은평구불교사암연합회장 인 성은스님(삼천사 주지의 강의로 기초의법을 거쳐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사암연합회 후원으로 호국영령과 구민화합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와 참회대회도 매년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심회 법우들은 이웃 사랑을 품으로 실천하는 전명사들입니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



◇은평구청 불심회 회원들이 은평사암연합회장 성은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모습.

## 봉사·친절 베푸는 공무원 불자되기 발원 관내 사찰과 유대... 80여 사암 순회법회

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길영 회장(재무국장)을 비롯 한 회원들의 탄탄한 조직력은 남다른 데가 있어 저마다의 원함이 있 으면서도 불심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총무, 포교, 봉사, 상조부 등으로 부장과 2-3명의 간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부별 활동을 자율 적으로 펼치고 있지요. 또한 법우 들 한사람 한사람의 돈독한 신심이 큰 원력을 이뤄 불심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 습니다. 매일 조석으로 108배와 금 강경을 독송하는 회원들도 10여명 에 이릅니다.

급 등 법우들의 어려운 이웃을 돌 보고 챙기는 모습은 자못 아름답기 까지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서울 시청 앞에 맺어지던 봉축탑이 세워 지고 있지요? 은평구청 앞 광장에 도 법우들과 구청 직원들의 작은 소망을 담은 연등을 총총이 매달아 봉축탑을 세웁니다. 봉축분위기를 절로 느낄 수 있다고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불심회는 법회 때마다 부처님 닐은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 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이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는 공무원불자가 되어야 겠지요. ■김명락 포교부장(보건행정과)

## 불교산악인련 창립 5주년 기념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 재추진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27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남북통일 기원 및 총재 0·취임법회를 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은 백두대간 영봉을 종주, 산상에서 남북통일 기원연등을 밝히고 법회를 여는 기원행사로, 단위 산악회가 지원법으로 참여해 영봉을 오른다. 창립 1주년이던 98년 재정 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장정은 김정길 신임총재 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김대원 사무국장은 '남북의 화

해분위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산악인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대장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새벽예불·108배 정진 소모원 법우회, 동화사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규)는 5-6일 대구 동화사와 팔공산 깃바위를 순례했다. 지난 4월 창립 이후 첫 성지순례인 이날 순례에 참가한 20여 회원 및 가족들은 동화사 새벽예불과 깃바위에서 108배 정진을 갖는 등 불교의식을 체험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5일 성남 자장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다.

## 사랑나눔 경로잔치

###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는 5일 성남 자장원에서 '고객사랑 철도사랑 사랑나눔 한마당' 경로잔치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회원과 가족 30여명은 방 청소와 주변 정리 등 하루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한편 회원들로 구성된 풍물패와 국악인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박우락 법우회장은 "매년 실시해 온 성지순례를 실천하는 불자상 확립을 위해 올해에는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는데, 회원들이 더 뿌듯하게 회향해 의미가 깊었다"면서 "매년 복지시설을 찾아 일일봉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 모임에선

### 서울경찰청 불교회 성지순례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정인석)는 20일 단양 구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동참하는 이번 순례에서는 구인사 참배에 이어 온달동굴과 영월 청낭포, 단종릉을 둘러본다.

### 구로승무소 법우회 낙산사 순례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재)는 16일 양양 낙산사와 흥련암을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순례는 낙산사 총무 적산스님의 법문과 사찰 안내, 흥련암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 단체장 동정

**호국연무서서 위문공연**  
김철선 대한불자가수회장은 20일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불자가수 10여명을 초청, 군장병 위문공연을 갖는다.

**창립 준비 발기인 모임**  
이진우 광주서구청 공무원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은 18일 서구청 인근 음식점에서 창립을 위한 발기인모임을 갖는다.

**광주국세청불자회 3대 회장에**  
이준일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은 2일 무각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초심자 위한 기초교리 강좌**  
김명연 은평경찰서 불심회장은 10일 서울 진관동 백화사에서 주지 일법스님을 초청,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열었다.

##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하라

명년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옥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합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환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메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참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영상이라고 말한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려 나가 내기 만나게 된 것도 삶이었다. 그러나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 적멸의 즐거움

정효스님 지음 / 신국판 / 240쪽 / 값 7,000원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벌레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탑도 만들지 말라'는 청학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혜안스님 등 충격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입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서서 거꾸로 입적하거나 뜰 앞을 태연히 걸다가 오는 떠나겠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계 등도 소개하였다.

욕심이 불에 타 흠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흠으로 돌아가 다시 불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곳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인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효스님 엮음 / 신국판 / 132쪽 / 값 5,000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효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경진해서일까,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스님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임종계)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날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말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걸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밑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계 속에는 해탈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죽음과 한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장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토신앙의 광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웃었고, 내 물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물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괴로워하였다."

-원포체-